
저자 (Authors)	李成市, 이동주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4 , 2009.12, 323-333 (11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4 , 2009.12, 323-333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62324
APA Style	李成市, 이동주 (2009). 초창기 한국목간연구에 관한 覺書. 목간과문자, 4, 323-3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초창기 한국목간연구에 관한 覺書

李成市*

- I. 들어가며
- II. 한국목간과의 만남
- III. 한일공동연구의 진전
- IV. 맺음말-새로운 전개를 위해

I. 들어가며

이번에 한국목간학회에서 필자의 목간연구의 경험을 적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다. 필자는 여러 우연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목간연구에 종사해온 것에 지나지 않고, 목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한국학계에서 나의 개인적인 목간연구가 유용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의 목간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협동작업으로 한국목간연구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사실에 필자는 감사한다. 그 선상에서 개인적인 경험도 또 다른 시점에서 본다면 공유할 만한 다양한 방법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또 현재 한국목간연구의 급속한 진전으로 본다면 조만간 잊혀져 버릴 사실도 많아, 이 기회에 비망록으로서 기록해 두고자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생겼다. 조그마한 경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목간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한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증가하게 되길 바란다. 이 같은 기회를 준 주보돈 회장을 비롯한 관계각위에 깊이 감사드린다.

* 日本 早稲田大學 文學學術院 教授

II. 한국목간과의 만남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5~6세기의 석비 발견이 잇다르고, 이들 석비는 종래 편찬사료에서는 알 수 없던 사실을 밝혀주게 되었다. 특히 중원고구려비(1978년), 단양적성신라비(1979년), 울진봉평신라비(1988년), 영일냉수리신라비(1989년)의 발견은 한국고대사연구에 크게 활기를 주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경주 안압지에서 약 50점의 목간의 출토(1975년)가 보고되었지만,¹⁾ 단편적이며 문자수가 적은 것도 있어서 당시는 상기의 석비정도로 주목된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雁鴨池』 발굴보고서에 목간의 조사를 담당한 이기동선생의 연구성과가 『경북사학』 창간호에 개별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는 『國學院雜誌』(83-6, 1982년)에 그 번역이 게재되었고, 한국출토목간의 존재가 널리 일본 학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우연히도 그 해(1982년) 8월에 부여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있어, 회의 종료후 이기동 선생의 안내로 타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선생·키무라 마고도(木村誠) 씨와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였고, 한병삼 관장의 후의로 안압지 출토 목간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것이 필자로서는 한국목간과의 최초의 만남이며, 제한된 시간으로 관찰은 불충분하였지만, 목간과 직접 마주보고, 목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감을 체험한 행운이었다. 또 이기동 선생과 함께 새로운 판독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라 할 수 있다.²⁾ “하여간 직접 목간을 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는 금언은 이때의 체험에 의한 것이 크다. 이러한 機緣을 만들어준 것은 이기동 선생이다.

그후, 생각치도 못한 계기로 한국목간에 대면할 기회를 얻었다. 1990년 말 잡지 『しにか』에 특집 「목간의 세계」에 게재할 한국목간에 관한 원고를 의뢰받았다. 모처럼 기회도 있고, 당시 하남시의 이성산성에서 수집된 목간이 출토된 것을 뉴스로 접하였기 때문에 출토된 지 얼마안된 이성산성 목간을 다루어 보고자 생각하였다. 일본에서 전화로 이기동 선생에게 상담했을 무렵, 발굴담당자 심광주 씨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기동 선생이 친히 김병모 관장의 허가를 받아 갑작스레 한양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제한된 시간내에서 조사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기동 선생과 박물관까지 무거운 하물을 가지고 한양대학교역에서 박물관까지 달렸던 것이 생각난다.

이성산성 제3차조사에서 발굴된 목간은 10점에 달했지만, 그중에 冒頭에 「戊辰年」이라 쓰여진 다면 목간은 선명한 몇 개의 문자가 즉석에서 읽히게 되었다. 사용년을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진 귀중한 목간 앞에 흥분하며 2시간 정도 수집된 목간을 아울러 관찰하였다. 심광주 씨와 대화를 반복하며, 바로 옆에서 석문을 작성하던 것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각난다.

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雁鴨池』(서울)에는 이기동선생이 집필한 「木簡類」가 게재되어, 안압지 목간의 전모가 공개되었으며, 분명하게 된 것은 2007년이 되어서이다. 국립경주박물관, 2007, 『新羅文物研究』 1 참조.

2)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서울)에는 이때 조사에 의한 석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의 조사성과는 다음해 1991년 5월에 간행된 잡지 『しにか』(2-5)에 게재되었다(「신라목간과 백제목간」). 그 같은 새로운 성과도 있어서 같은해 국학원대학의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 선생이 시민을 향한 강좌 「목간이 말하는 고대사」(朝日문화센터-요코하마)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필자는 「신라와 백제의 목간」을 담당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강좌는 오랫동안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최첨단의 목간연구에 종사해온 키토 기요아키(鬼頭清明) 씨, 중국고대사·고문서연구의 1인자인 이케다 옹(池田温) 씨, 목간연구를 필두로 일본의 출토문자사료의 선구적인 연구자인 토노 하루유키(東野治之) 씨, 타테노 카즈미(館野和己) 씨 등 여러 연구자가 주제별로 담당하는 연속강좌였다. 지금으로서는 생각지 못할 강사진이 나란히 앉아, 당시로는 출토점수가 적은 한국출토목간에 대해 이들 연구자의 연구수준과 더불어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일 것같은 느낌이었다. 필자는 월간잡지 『しにか』에 게재한 논문을 핵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강좌의 수학생은 30명 정도였었지만, 이 시민강좌에서 필자가 배운 것은 목간이라는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 대해서이다. 연구자 측에 목간의 자료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가 열의가 있다면 쉬운 일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또 회장에서 쏟아진 그들의 소박한 질문과 의견은 그 후 필자의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연속강좌의 내용은 이 직후에 간행될 예정이었지만, 집필자가 다망했었기 때문에 1996년에야 서적으로 간행되게 되었다(平野邦雄·鈴木靖民編, 『木簡が語る古代史』上 都の変遷と暮らし, 吉川弘文館).

상기의 서적 편찬에도 관계하였던 스즈키 야스타미 씨와 연구상 선배인 사카요리 마사시(酒寄雅志) 씨는 이 당시 목간학회에서 한국목간의 의의를 연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목간학회 간사였던 타테노 카즈미 씨에게 신청해두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필자는 1996년 12월에 개최된 제18회 목간학회연구집회에서 「한국출토 목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고하게 되었다.³⁾

일본의 목간학회에서는 1년에 1번, 연구집회를 개최하고, 그해에 일본전국에서 발견된 목간을 전시하거나 그 유적의 발굴담당자가 유적의 성격을 설명하게 되므로 그러한 연구집회의 성격으로 인해 필자의 보고에 대해서도 한국출토목간만 아니라 그것이 출토된 유적의 성격에 대해 친구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 씨가 담당하였고, 필자는 상기의 2개의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구두발표를 하였다.

당시 한국목간은 100점도 채 되지 않은 단계이고, 대부분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출토목간에 대해 일본출토목간과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가능한 지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고의 의도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10만을 단위로 하는 목간의 출토점수가 있고, 장래 그것들과의 비교의 시점에서 한국출토목간의 특징과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이 밝혀지지

3) 李成市, 1997, 「韓国出土の古代木簡」, 『木簡研究』19(奈良).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⁴⁾

종래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목간과 중국목간 간에는 대부분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목간의 형태도 서식도 완전 다르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그 선상에서 일부 연구자는 일본 목간은 일본열도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상기의 발표당시에도 다행히 일본출토목간과 관련지를 만한 한국출토목간이 있어서 그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을 무렵, 발표후에 회장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출토된 목간의 유관성에 대해 새로운 교시를 받았다. 그러나 연구자 일부에서는 한일의 목간사이에 온전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엄격하고 강경한 의견이 있었음이 분명히 기억된다.⁵⁾ 물론 현재는 일본고대사의 개설서에도 한국출토목간이 일본목간의 원류인 것이 설명되고 있어,⁶⁾ 13년전의 것과는 격세지감이 있다.

필자의 목간연구의 전기는 발표후에 찾아왔다. 연구집회가 종료한 그날 밤, 스키 야스타미 선생으로부터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선생을 소개받았다. 그때 대화 가운데 히라카와 선생은 일본목간을 고찰할 때 한국목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여서 필자도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정확히 다음해인 1997년 이른 봄,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특별전 유물에 새겨진 고대문자」⁷⁾의 개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전시의 견학을 중심으로 성산산성목간이 출토된 현지와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이용현 씨의 협력을 받아 한국고대문자자료의 조사여행을 실현시켰다. 일본고대사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10인에 달하는 일행이었고, 히라카와 선생으로서는 최초의 외국여행이었다.

부산시립박물관의 특별전에는 박물관의 후의로 발견된 지 얼마 안된 황남동 출토 목간을 비롯한 전시유물을 1점씩 직접 관찰하기에 이르렀다. 그 발걸음을 함안으로 향하여 성산산성을 답사하였다. 게다가 경주에서는 목간의 출토지인 안압지와 황남동의 출토지점을 확인하였다. 안압지 출토목간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손명조 실장의 후의로 안압지목간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부산시립박물관과 경주박물관에서 서사재료에 주목하면서 문자 한 자, 한 획에 대한 정치한 관찰과 분석을 거듭하며, 히라카와 선생의 조사방법은 여태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목간의 조사에서도 여러 연구자가 유물을 직접관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유할 수 있을 만한

4) 李成市, 1997, 「緒についた韓国の木簡研究—木簡学研究集會にふれて」, 『統一日報』1996년 12월 12일 (東京).

5) 발표 당일밤, NHK뉴스에서 나라지국의 취재에 의해 목간학회에서의 발표내용이 보도되었다. 보도내용 가운데 한국목간의 일본목간으로의 영향관계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 인해 다음날 집회에서 한 연구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간학회는NHK에 항의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6) 鐘江宏之, 2007, 『地下から出土した文字』日本史リブレット15, 山川出版社(東京).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특별전 유물에 새겨진 고대문자』(부산).

사실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감명받았다. 관찰의 기록은 소위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서체를 모사하는 사람, 의논을 기록하는 사람,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후일 그런 기록은 정리되어 참가자에게 배포되고, 게다가 그것에 기초한 검토회를 하였다. 이때의 조사여행에서 그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던 기본적인 조사 방법과 자세를 배울 수 있음을 느꼈다.

문자가 쓰여진 소재의 관찰과 문자의 판독에는 각자 의견을 내고, 정도를 높이며, 참가자 전원이 납득할 만한 의견을 내고, 그 가능성을 교환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진정한 공동작업이 필요함을 통감하였다.

공동연구 다음해(1998년) 필자는 안식년으로 서울대에서 체재하였고, 1992년이래 발굴이 계속되어 온 성산상성에서 새로이 목간이 출토되고 있다는 정보를 어떤 선생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때 경주대 김창호 선생으로부터 성산상성목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가 준비중임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일본측 보고자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지난해의 체험도 있고, 히라카와 선생에게 참가를 부탁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응답하였다. 다음해 1999년 11월에는 한국 최초의 목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개최되었고, 이 기회로 국제적으로도 한국목간의 의의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이후 일본목간의 원류가 6세기의 신라목간에 있음이 확실히 되었다.

또 이 학술회의의 개최는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그것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특별한 조치로 회의전에 적외선 카메라에 의한 관찰이 허락된 점이다. 이 시도는 현재로 보면 한국목간연구에 실로 큰 획기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오랫동안 육안에 의한 목간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적외선 카메라에 의한 문자의 조사는 판독불능한 문자를 부상시켰고, 석문작성에 격단의 비약을 초래하였다. 출토되어 장기간을 경과하면 많은 목간은 흑화되고, 판독이 거의 곤란하게 된다. 이처럼 목간의 재조사에 적외선 카메라가 크게 유효하다는 게 이때의 조사에서 재확인되었고, 이 이후 조사방법에 있어 큰 흐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음해에는 『한국고대사연구』19호에 국제회의의 발표문이 게재되어, 한국목간이 중국목간과 일본목간과의 관계속에서 검토된 성과가 공표된 것은 한국목간연구에 의의가 큰 것이었다.

Ⅲ. 한일공동연구의 진전

한편 그 사이 일본에서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히라키와 미나미선생이 중심이 되어 창설 20주년 기념 「고대일본, 문자가 있는 풍경—금인에서 정창원문서까지」전(2002년 3월)의 준비단계에서 이 특별전에는 한국의 목간과 석비의 전시가 기획되었다. 그렇지만 월드컵 기념행사로 한일양국의 국립박물관은 매우 분주해져,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 온 목간과 석비 등 유물 대출에 관한 계획은 좌절되었다. 그래서 히라카와 선생과 나는 2001년 12월 말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서 곤란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양국의 문화교류, 학술교류를 위해 유물 대출의 허가에 직접 양

해를 구하게 되었다. 이 건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양 기관장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실현되었다. 여기서도 이기동 선생이 분주히 도와주시고,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이었던 이진무 선생이 실현을 위해 여러모로 진력한 것을 명기해 두고자 한다.

이 특별전에는 고대일본의 주요한 문자자료와 함께 한국출토 석비와 목간이 다수 장래, 전시되었고,⁸⁾ 일본열도와 한반도와의 사이에 문자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주목되어 그 후 연구에 큰 계기가 되었다.⁹⁾

때마침 이 해(2002년)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에서 중국문명과 지역문화의 상호관계의 해명을 과제로 하는 와세다대학 21세기 COE프로그램 「아시아지역문화 엔한싱 연구센터」(8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가 개설되게 되었다.

이 거점연구에서 주요한 연구과제는 아시아에서 중국문명과 지역문화의 상호관계의 해명이었다. 나는 낙랑군설치 이후 중국문명이 중국 동북지방·한반도에 끼친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한자문화를 통해 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였고,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과 금석문을 중심으로 출토문자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자문화의 위상을 해명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하게 되었다.¹⁰⁾ 그래서 우선은 한국출토목간의 기초적인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와세다대 조선문화연구소에서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씨를 조수로 채용하고, 히라카와 선생을 객원교수로, 야마카타대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씨를 객원연구원으로 맞아 빠짐없는 조사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상술한 「아시아 지역문화 엔한싱 연구센터」에 있어 연구과제 편성의 특색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지역문화를 엔한싱(필드란 조건에서 주어지는 자료의 데이터화)하고, 새로운 아시아문화론을 세계를 향해 발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선상에서 우리의 연구소도 또한 한국의 관계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필수조건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발굴되지 얼마 안된 조사 중의 미공개자료를 목적의식을 달리하는 외국연구자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쉽지는 않다. 우선 그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면, 가이드라인과 목적의식의 공유와 신뢰관계의 구축은 불가결할 것이다.

이러한 경위도 있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목간이 출토되고, 그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현 가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출토목간의 종합적인 연구를 시야에 넣기 위한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제출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김선태 소장, 정계옥 실장은 우리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2003년부터 공동연구의 환경을 갖추기 위해 협의를 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8)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編, 2003년 3월, 『古代日本 文字のある風景』(朝日新聞社).

9) 平川南編, 2005, 『古代日本 文字の来た道』(大修館書店)은 특별전시 「古代日本 文字のある風景」를 기념해서 개최된 심포지움의 기록이다.

10) 早稲田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アジア地域文化エンハンシング研究センター編, 2004년 3월 「アジア地域文化エンハンシング研究センター報告集 I 2002年度」(早稲田大学).

1년간의 준비기간으로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 와세다대 조선문화연구소 사이에 2004년 3월 정식으로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3월에 이르기까지 공동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창원문화재연구소와의 주요한 공동연구의 실시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그 개략을 서술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한국목간에 관한 연구기반을 정비하고, 한국최초의 종합적인 목간 도록인 『한국의 고대목간』(창원문화재연구소편, 2004년7월)의 간행 및 일본어판의 출판에 와세다대학측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 응분의 협력을 하기로 노력했다. 목간도록의 계획·입안·조사·편집·간행의 지휘를 맡은 정계옥실장의 신속·적확한 판단과 행동력에 의해 단기간에 기념비적인 사업이 실현된 것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간행에 의해 고대사자료로서 목간에 관한 정보가 한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공유되게 되었고, 한국출토목간의 연구는 급속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또 주요한 공동연구의 대상이 되는 성산산성목간에 관한 토의 중에 그 보존처리가 우선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2004년 12월에는 동 연구소보존과학실에서 목간의 보존처리를 담당하고 있던 양석진 씨를 일본으로 초빙하여, 나라문화재연구소, 원흥사문화재연구소에서 목간보존처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게다가 여태까지 성산산성목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국제심포지움 「한국출토목간의 세계」를 개최하고, 보고와 검토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에 수반해서 한국에서 목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윤선태 씨, 이용현 씨를 객원연구원으로 맞아 매년 초빙하여 연구성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조선문화연구소와 창원문화재연구소의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의 개최는 아래와 같다.

「한국출토목간의 세계」 (2004년1월24일)

「한국출토목간의 세계Ⅱ」(2005년1월22일)

「한국출토목간의 세계Ⅲ」(2006년1월14일)

「한국출토목간의 세계Ⅳ—한국출토목간30년」(2007년1월13일)

이 심포지움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목간연구자가 매회 다수 참석하였다. 아울러 2007년의 심포지움에는 이기동 선생을 비롯하여, 창원문화재연구소의 이성준 씨, 윤선태 씨, 이용현 씨를 초청하여 150인이 넘는 참가자 속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상기 심포지움의 보고와 패널 디스커션을 골자로 『한국의 고대목간』에 실린 논문을 더해 그것들을 집필자에 가필하여 덧붙여 새로이 편수하여 『한국출토목간의 세계』(雄山閣, 2007년)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일본 최초의 한국목간에 관한 서적이 되었다.

역시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관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의 종합적인 공동연구성과에 대해서는

2006년 말에 공표된 최신의 출토목간을 더하여 한국어판의 공동연구보고서를 2007년 말에 간행하였다. 또 일본어판도 또한 2009년 6월에 간행되었다.¹¹⁾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 서술한다면, 최대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목간을 관찰하고, 목간의 제작 기법을 해명한 것이다. 목간의 대다수는 소나무 가지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며, 그 작성기법에 의해 현재는 출토목간의 충실한 복원까지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목간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 성산산성목간의 전형적인 제작기법의 하나가 해명되었고, 그 성과에 입각하여 히라카와 선생은 2008년 8월에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그와 같은 초기 신라목간의 형태가 고대일본에서 1행으로 쓴 목간을 성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금후 검토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남아있지만, 목간의 형태로부터 읽어낼 만한 여러 사실은 이처럼 적지 않다.

게다가 공동연구의 성과에는 적외선카메라를 통해 장시간의 관찰을 계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석문의 작성을 시도한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문헌연구자는 대개 자기의 해석에 선행하여 문자의 판독을 하고 있지만, 서체의 용례를 가능한 한 연결지으면서 문자를 겹쳐서 읽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초보적인 방법을 공동연구 등에서 배울 수 있었다. 금후 한국내의 연구자와 종합작업이 남아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는 성과라 생각하고 있다.¹²⁾

지난 공동연구는 2008년 3월에 일단 종료하였다. 역대 창원문화재연구소장 아래 실장을 맡은 정계옥 선생, 박종익 선생 두 선생은 장기간 공동조사에 종사해 왔고, 문화재보존과 조사에서 그 분들의 정열과 진력에 경북함과 아울러 한국목간연구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게 마음을 울렸다.

이하 창원문화재연구소와의 공동연구와 평행하여 다른 연구기관과의 사이에도 공동연구조사의 기회를 얻었다.

- | | |
|--------------|-----------|
| ①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안압지출토목간 |
| ② 국립중앙박물관 | 경주안압지출토목간 |
| ③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월성해자출토목간 |
| ④ 국립부여박물관 | 능산리출토목간 |
| ⑤ 국립부여박물관 | 쌍북리출토목간 |

이들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거나 혹은 간행된 보

11) 早稲田大学朝鮮文化研究所・大韓民国国立加耶文化財研究所, 『日韓共同研究資料集 咸安城山山城木簡』(アジア研究機構叢書人文学篇第3巻, 雄山閣, 東京, 2009年6月).

12) 공동연구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橋本繁, 2008년12월, 『韓國木簡のフィールド調査と古代史研究-咸安・城山山城木簡の共同研究より』, 『史滴』30. (東京) 를 참조.

고서 등을 통해 공표되었다. 또 미발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허가를 받아 가급적 빨리 공동보고서를 간행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해준 여러 기관에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외의 성과 중에 특필할 만한 것은 창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콘텐츠의 협력을 받아 2002년에 출토된 성산산성목간 70점을 고화소 디지털 카메라로 칼라사진과 적외선사진을 촬영하고, 공표한 것이다. 이들 사진은 보정작업을 한 후, 2006년 11월부터 창원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되고 있다(<http://www.haman-sungsan.go.kr>).

본래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조사중인 성산산성목간은 그 수에서도, 목간의 성격에서도 한국출토목간에서 유난히 주목되고 있다. 그 선상에서 공동조사의 과정에서 목간이 가진 형태상의 특색을 전할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 상술하였다시피 『한국의 고대목간』의 간행이 한국목간연구의 비약적인 진전을 촉구한 획기가 된 만큼, 판독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는 반드시 충분히 포함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적외선사진에서는 목흔이 더러워져 판정이 곤란하고, 또 현상의 칼라사진도 흑색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독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다.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개발한 해상도가 높은 칼라사진에 화상처리를 더해 선명한 현상칼라사진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보정한 칼라사진과 새로이 촬영한 적외선에 의한 2종류의 사진을 병행해서 동시에 관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목간을 실견하여 최초 가능한 표면관찰을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것에 의해 국내외 연구자에 화소가 높은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자료의 데이터화에 의해 목간의 문자정보에만 머물지 않고, 목간의 제작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종래에 없던 디지털 자료의 공동개발에 의해 실현되었고, 게다가 남은 목간에 대해서도 기술의 개량을 더하는 선상에서 點數를 증가시켜, 금후 활용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IV. 맺음말-새로운 전개를 위해

지난 2007년 1월 9일 한국목간학회가 결성되었고, 그것을 기념하여 국제학술회의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가 10~11일 2일에 걸쳐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되었다. 당일은 한국내의 고대사연구자만이 아니라, 고고학·국어학·언어학·서예학 등 다수의 연구자와 함께, 일본·중국의 목간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열심히 토론을 전개하였다. 필자는 여태까지 한국목간의 공동연구를 함께해 온 히라카와 선생, 미카미 씨, 하시모토 씨와 동석하였다. 대단히 감동적인 심포지움이였다. 금후 계속해서 한국에서 목간연구의 융성을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목간학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첫째, 반드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며 목간연구 센터의 창설에 주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는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에 목간학회의 사무국이 있고, 무엇보다 목간연구와 정보발신의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목간연구의 향상적인 거점이 필요하다. 특히 목간이 가장 먼저 고고학자료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국의 목간 및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정리, 축적, 보관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하는 거점이 필요하게 된다.

금후 점점 출토수가 증가할 것 같은 목간에 대비하여 학술적인 대응의 방법, 목간의 보존처리, 보관 등의 정보를 정리, 축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고고학의 전문기관과 고고학자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는 주요한 지역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배치되어 있고, 특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지금까지 목간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맡아 이 사이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다. 종래 발굴현장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할 만한 대응이 늦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목간학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동해서 목간조사, 연구를 유기적으로 한다면, 효율적인 질이 높은 연구기반이 조성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서의 체험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목간이 출토된 유적의 정확한 정보를 빼고서는 목간의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실제 이 사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박종익 실장, 이성준 씨에 의한 성산산성목간의 출토유적의 연구에 의해 성산산성목간의 성격은 완전 새로이 규정되어 버렸다.¹³⁾

둘째, 목간이 출토될 때에는 상술한 조직을 가동시켜, 전문위원들에 의한 조사자료를 작성해서 공표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희망한다. 그 같은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자료에 기초해서 매년 목간학회대회에서 소개하고, 정보의 공유를 신속히 하는 것을 정식화한다면, 외국의 연구자가 참가해서 최신의 정보에 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한국목간연구의 급속한 발전은 목간학회의 회원간에 분야를 넘어서 활발한 정보교환에 의한 것이라 얼핏 들은바 있다. 이러한 환경이 외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이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셋째,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의 정보를 망라한 도록을 학회의 총력을 결집시켜 작성해야 할 것이란 희망이다. 현시점에서 한국목간의 기초정보를 망라한 도록을 작성해 둔다면 금후 각지에서 목간이 발견될 때에도 발견자가 도움이 될 듯 하다. 지금 한국의 목간은 전국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 출토수가 1000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단계에서 일단 정리해서 규범을 작성해 두면, 금후 조사의 참조사례가 될 듯 하고, 이러한 간행사업은 규범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닐 듯 하다.

그때 가능한 한 한국목간학회의 「공통견해」로서 석문을 작성한다면 해외의 연구자로서 대단히 큰

13) 李成市, 「韓国木簡研究の現在-新羅木簡研究の成果を中心に」(工藤元男·李成市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009年3月) 230頁.

도움이 된다. 현재처럼 연구자마다 복수의 석문이 단순히 병렬되어 있는 것은 목간연구에 지장을 주게 된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그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 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견해를 명시하는 것에 의해 논의의 정리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담이며, 해외에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국내에서의 연구 조건과 다르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사정을 알지 못한 안이한 제언이라는 질책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한 의견을 말하기 쉬운 것도 있다. 금후 한국목간연구를 위해 한국국내의 여러 선생님들과 협력하면서 목간을 통해 종래 문헌사료에서는 해명할 수 없었던 한국고대사상을 풍부히 하고자 하며 금후도 미력하나마 노력할 것이다.

[번역: 이동주(성립문화재연구원)]